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6 | 08



개벽에서 다시 창조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출발지 인천항을 토대로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
인천의 영원한 가치, 천·지·해(天·地·海)의 새로운 창조.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08
AUGUST
2016

인천아트플랫폼은 110여 년 전
에 지은 창고와 공장을 리모델
링해 만든 복합문화예술 공간
입니다. 시 등록문화재 제248
호인 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
롯한 근대건축물과 1930~40
년대에 지은 건물들을 하나로
연결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내
일을 여는 예술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닫고 피어난 예술의 꽃은, 그
향기가 더 깊고 풍부합니다.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인천아트플랫폼

I LOVE 인천

노래 인순이/ 작사 이승남, 원종문/ 작곡 원종문

푸른하늘 은빛날개

아름다운 푸른바다 꿈꾸는 그대 모습

월미도 팔미도 수려한 I Love 인천

빛나는 태양 춤추는 파도

너와 나 푸른 꿈 안고서

인천대교 달려가자 저 넓은 송도의 국제도시로

하늘과 바다를 품고 날아올라

더 힘차게 날아올라

우리 모두 꿈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펼쳐보자

나가자 높게 넓게 저 넓은 세계로

푸른 꿈 가득 싣고 저 높은 하늘로

거친 파도를 넘어 이 기상 높여서 다함께 나아가자

나가자 높게 넓게 저 넓은 세계로

푸른 꿈 가득 싣고 저 높은 하늘로

우리의 희망을 꿈꾸는 미래도시

사랑이 숨 쉬는 이젠 세계의 인천

경쾌하고 흥겨운 멜로디와 가수 인순이의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I Love 인천'은 활기하고 희망이 넘치는 인천을 노래한다. 이 곡은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를 기념해 만든 앨범 「뜻을 힘차게 펼쳐자 세계와 미래로」에 수록된 곡이다. 이 앨범은 무영건축 안길원 회장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울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작했다. 경쾌한 모던 팝의 'I Love 인천'은 한번 들으면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 묘한 중독성이 있다. 한편 인천대교는 주탑 간의 거리(주경간)가 800미터로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해상 교량이다. 교량의 전체 길이(21.38km)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7위다.

※'인천 가치 재창조'는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인천의 노래'를 연재합니다.



CONTENTS

•

2016 AUGUST | VOL.272

INCHEON MONTHLY MAGAZINE



06



12



30

06	별이 있는 풍경
08	여름밤 별자리 즐기기 가족천체관측교실
12	우리는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사람들
18	포커스 인천주권 시대
22	시민행복 더하기 재정건전화
24	도심에서 여름나기 여름 핫스팟
30	자연에서 여름나기 강화도 이색 캠핑장
34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재능고 편
40	여름 축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송도세계문화축제

42	8월의 문화 행사
44	박물관 이야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46	NEWS BRIEF
49	IMAGE NEWS
50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53	COUNCIL NEWS
54	INFO BOX
57	인천 사는 이야기
58	모닝 커피 한잔 문화상점 재미난상회 대표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032-440-8306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시민께서 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서구 주민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세요.**
서인천가족상담소(564-1366)와 여성긴급상담전화 인천센터(1366)에서 가정폭
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남구 주민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875-1577)에서 한국어·문화 교육, 가족 교육·상담, 자
녀 지원, 직업 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남구 주민입니다. 청소년 무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인천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862-8751)를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교육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 둘레길을 걷는데, 길을 알리는 리본이 너무 없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인 시 공원녹지과(4440-3662)로 전달하였습니다. 건
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둘레길을 걷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시 시티투어버스 이용 문의드립니다.**
인천시시티투어버스는 인천역 또는 센트럴파크(컴팩스마트시티)에서 출발해 순
환하는 코스입니다. 센트럴파크(컴팩스마트시티)→아트센터 경유(인천대교 전
망대)→개항장거리(아트플랫폼)→월미공원→월미문화의 거리→인천역(차이나
타운)→하버파크호텔→아트센터 경유(인천대교 전망대)→송도테크노파크(현
대 프리미엄 아울렛)→송도컨벤시아(NEATT)→센트럴파크(컴팩스마트시티) 코
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72-40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300만 인천 시대가 기대돼

올해 외동딸을 미국의 명문 대학인 펜실베이니아대에 입학시킨 맹은진
(45) 독자님은 인천 토박이입니다. 삼곡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한 2
년간 아버지를 따라 충남 천안에 이사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빼
고는 40년 넘게 이곳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인천에서 사업하면서 연수구 동춘동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
금은 송도에 살고 있는데 5년 전 아이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 전액 장
학생으로 발탁되면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독자님에게 인천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요즘
은 쇼핑부터 문화생활까지 모든 게 다 인천 안에서 해결돼 즐겁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만 해도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30~40분을 걸어 다닌 친구가 있었죠.
지금은 교통망도 잘 구축되었고, 인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굿모닝 인천’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미국으로 유
학 갈 딸과 함께 오랜만에 차이나타운을 찾았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게 정
비돼 있고 다양한 공연도 하고, 월병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먹거리를 접하
니 이색적이다군요. 딸아이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뉴스를 접하고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애들이 외출하고
늦게 귀가해도 안심이 됩니다. 또 인구 300만 도시를 앞섰다니, 내 고향
인천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좋습니다.”



독자 맹은진(45) 연수구 송도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1,875

숫자로 보는 인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무조건 놀이
터나 공터로 향했다. 그렇게 모여든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다. 저녁밥 먹으라는 엄마의
외침에 집에 들어가 밥 먹고 나면 그제서야 생각난 숙제를 하다 잠이
들기 일쑤였다. 돌이켜 보면 그런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이 때론 살아가
는 힘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요즘 놀이터엔 같이 놀 친구들이 없다.
확실적이고 치열한 경쟁구도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모두 학원으
로 몰아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
에 점차 사설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오죽하면 친구를 만
나려면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학원은 이제
필수코스처럼 여겨질 정도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반교과 및 입시학원의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014년 말 현재 인천의 일반교과학원은 1천,875곳으로 집계된다. 통계
청의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 ‘일반 교과 학원’으로 등록된 업
체가 1993년 700곳, 1997년 895곳, 2001년 828곳, 2005년 1천226곳,
2009년 1천567곳, 2014년 1천875곳으로 학원의 수는 훌쩍 늘었다.
어름방학을 맞아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실제로 많은 학원이 방학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엔
학원정보를 수집하고 입시설명회에 가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 스
스로의 삶을 응원해줄 수 있을까 한번쯤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
어보면 어떨까.

하늘 가득 별을 담다

칠혹 같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눈부신 은하수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여름밤,
우리가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다.

이 여름,
자연을 베개 삼아
그림 같은 별들의
바다 속을 유영(游泳)해보자.

우리
☆
보러
갈래요?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시인이 지은 '별 헤는 밤'의 한 구절이다. 고요한 밤 가만히 앉아 별을 헤아리는 일만큼 낭만적인 것이 또 있을까. 요즘은 겨울 못지않게 선명한 별을 감상하기 알맞은 계절이다. 더욱이 별들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은하수는 여름에 가장 또렷하게 보인다. 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천체관측교실을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홍승훈 자유사진가



내
별자리가
어디
있을까?

깜깜한 밤이 아름다운 건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과 달이 있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달에게 소원을 빌고, 북극성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등 한여름 밤하늘은 볼거리로 가득하다.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면 목성 띠·토성 고리도 보여 학생들이 체험교육으로 제격이다.

“저기 보이는 게 전갈자리랍니다. 그리스신화에 따르면 여신 헤라가 사냥꾼 오리온을 죽이려고 전갈을 보냈는데, 전갈의 의해 죽임을 당한 오리온이 별자리가 됐어요. 전갈 역시 나중에 별자리로 변했는데, 그 때문인지 전갈자리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오리온자리는 서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오리온’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자, 여러분 초코과자 떠올리면 안 돼요. 지금은 별자리 공부시간이랍니다~.”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내는 낮익은 제과회사의 이름도 별자리 중의 하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은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종일관 반짝거린다.

유쾌하게 별자리 얘기를 풀어나가는 조흥래 선생님(진산초등학교 교사·인천교사천문연구회원)이 천체망원경과 스크린을 오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손끝을 따라가니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등 말로만 듣던 별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맨눈에 봐도 신기하지만, 천체망원경으로 올려다본 밤하늘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목성의 띠, 토성의 고리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맑은 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별자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별에 대해 배워볼 수는 없을까?

영종도 백운산 기슭에 있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은 별자리뿐 아니라 밤하늘 달과 별을 관측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커다란 원형돔의 주망원경실에서 천장이 회전하며 문이 열리자 깜깜한 밤하늘이 모습을 드러낸다. 컴퓨터와 연결된 천체망원경은 원하는 별자리를 입력하면 신기하게도 별자리를 추적하면서 스크린 가득 별의 모습을 보여준다. 망원경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이 별보다 더 초롱초롱하다. 이번에는 직접 종이 망원경을 조립해 보는 시간. 망원경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내 손으로 만들어 본 망원경은 정말 멀리 있는 물체를 금세 내 눈앞에 끌어다 놓는다. 천체망원경 조작법은 별에 대한 꿈을 하나씩 더 갖게 한다. 탐색경으로 물체의 위치를 맞추고, 접안렌즈에 눈을 대고 물체를 확인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그런 아이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교사들은 인천교사천문연구회 교사들. 2009년, 별을 좋아하는 교사들의 동아리로 시작했던 인천교사천문연구회는 천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고 천체 관측 기술을 익히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매년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가족 단위 천체관측교실을 함께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별에 대한 꿈을 꾸고,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찰하고,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별자리와 행성을 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우주에 대한 꿈만이 아니라, 미래를 꿈꾼다.

잠깐!

야외에서 별 볼 때 준비하면 편해요~

> 별자리판 또는 스마트폰 별자리 앱
 별자리판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또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 별자리 앱도 유용한데, 스마트폰을 하늘에 대면 위치에 따라 별자리가 표시돼 편리하다.

> 모기 기피제
 귀찮게 달려드는 모기를 쫓기 위한 것. 덤으로 진드기까지 퇴치해 줄 제품이면 더욱 좋다.

> 손전등
 깜깜한 밤길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 조그만 손전등은 필수. 적색 셀로판지를 불빛 앞에 가려서 사용하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 별을 빨리 찾을 수 있다.

★ 별 관측 미래교육이 달라진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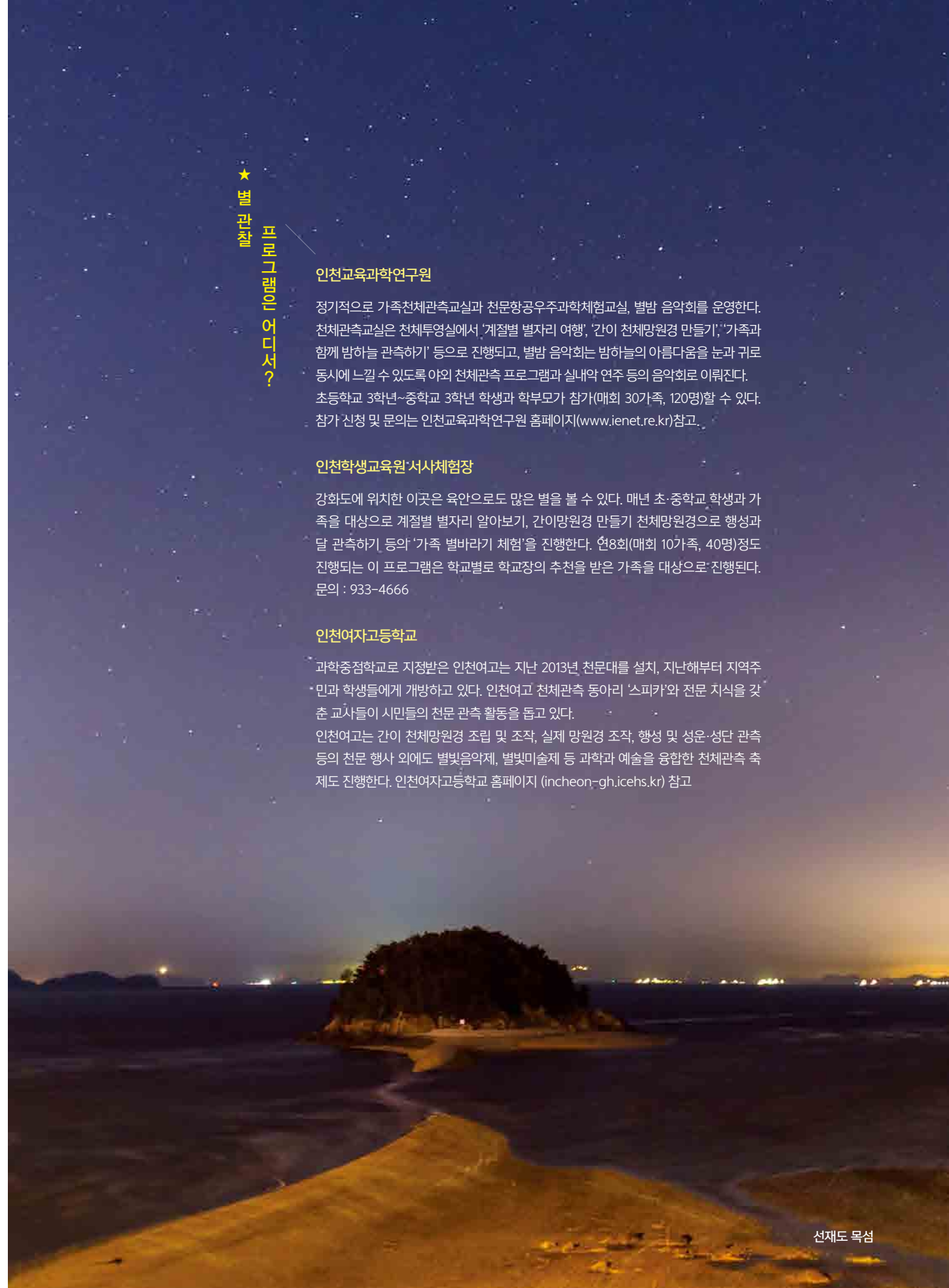
정기적으로 가족천체관측교실과 천문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별밤 음악회를 운영한다. 천체관측교실은 천체투영실에서 '계절별 별자리 여행', '간이 천체망원경 만들기', '가족과 함께 밤하늘 관측하기' 등으로 진행되고, 별밤 음악회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눈과 귀로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야외 천체관측 프로그램과 실내악 연주 등의 음악회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매회 30가족, 120명)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ienet.re.kr)참고.

인천학생교육원·서사체험장

강화도에 위치한 이곳은 육안으로도 많은 별을 볼 수 있다. 매년 초·중학교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계절별 별자리 알아보기, 간이망원경 만들기 천체망원경으로 행성과 달 관측하기 등의 '가족 별바라기 체험'을 진행한다. 현8회(매회 10가족, 40명)정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 933-4666

인천여자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받은 인천여고는 지난 2013년 천문대를 설치,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인천여고 천체관측 동아리 '스피카'와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시민들의 천문 관측 활동을 돕고 있다. 인천여고는 간이 천체망원경 조립 및 조작, 실제 망원경 조작, 행성 및 성운·성단 관측 등의 천문 행사 외에도 별빛음악제, 별빛미술제 등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천체관측 축제도 진행한다. 인천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incheon-gh.icehs.kr) 참고



우리는 인천

⑦ 인천아트플랫폼 사람들

110여 년 창고에서 꽃 핀, 오늘의 ‘예술’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이번 호에는 110여 년 묵은 창고에서 오늘의 예술을 꽃피우는 인천아트플랫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인천아트플랫폼 광장을 꾸밀 조형물을 작업 중인 임상현 작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1883년 1월, 제물포항이 열리면서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인천의 바닷길을 따라 새로운 문물이 쏟아지고 파란 눈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철길이 놓이고 항만이 세워지고 각국 영사관과 근대식 은행, 극장, 공원 등이 생겨났다. 인천 최초는 곧 대한민국 최초가 됐다.

타의에 의한 개항엔 아픔도 뒤따랐다.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미곡이 일제가 세운 바닷가 창고에 쌓여 그들이 놓은 길을 따라 바다 건너로 속절없이 흘러들어 갔다. ‘일본우선주식회사’는 개항기 때 인천의 해운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구 해안동 개항장 일대에는 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한 근대 건축물과 인천항 하역 물품을 보관하던 옛 창고 건물, 1930~40년대에 지은 인쇄소와 구멍가게, 작업실 등이 몰려 있었다. 쇠락한 도시의 뒷골목이 화려한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 건, 지난 2009년이다.

복합문화예술 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이 문을 열면서 이 일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크고 작은 전시장과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시들했던 거리에 생기가 돌았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최병국(60) 관장은 그때를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는, 학창시절에 붓 하나 들고 이 일대로 와 캔버스를 가득 메우곤 했다. “예술이 죽어가던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힌 채 먼지 자욱이 쌓여 가던 뒷골목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전국에서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창작열을 불태워 후미진 뒷골목에 빛을 비추고 다시 살아 숨 쉬게 했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광장에 직접 새겨 놓은 ‘하트’ 그림 앞에서, 최병국 관장

인천에서 꽃 핀 예술, 세계에 만발하길

평생 예술의 길을 걸어온 최 관장은, 그만큼 젊은 작가들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다. 그는 후배들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가로 서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고 싶다. “예술가의 신념 하나로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저 역시 그저 그림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인천아트플랫폼이 젊은 작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또 인천아트플랫폼의 주요 역할은 인천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화는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전쟁이죠. 작가들은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더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 세계를 심화시켜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에서도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 있

리라 기대합니다.”

오병석(43) 과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이 개관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다. 무엇보다 비전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존재 의미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작가들이 인천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는 올해로 7기를 맞았다. 현재 200명이 한 울타리에 있다. “앞으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수 천 명의 예술가들이 인천을 거쳐 가겠지요? 그들이 결국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이고 더욱 풍요롭게 할 겁니다.” 오 씨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딛고 한 송이 예술의 꽃을 피웠다. 그 꽃이 깊고 진한 향기를 퍼트리며 전 세계에서 만발할 그날을 기다린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인 손승범 작가(좌)와 윤대희 작가(우)
작가들의 만남은 더 깊고 풍부한 예술을 꽃피운다.

역사적 아픔 딛고, 예술창작 지원 공간으로 거듭난 옛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멤버인 오병석 과장(좌)과 갓 입사한 고승용 PD(우)
인천에서 꽃 핀 예술을 세상에 향기롭게 퍼트리는 주역들

작가와 작가의 만남, 예술의 깊이 더하다

손승범(32) 씨는 올해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인천의 작가다. 그는 이 시대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화폭에 담고 있다. 그의 작품 철학은, 멈추어진 시간을 넘어 새로운 변화 앞에 선 중구라는 공간과도 닮았다. 살아온 시간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지만,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는다. “이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기뻐요. 평소 존경하던 작가분들이 곁에 있는 건 행운입니다. 늘 새로운 작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이곳에서 열린 마음으로 작가들과 소통하며 예술적인 깊이를 더하고 싶어요.”

그는 입주 기간이 끝나더라도 근처에 작업실을 구할 생각이다. 실제로 그동안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렀던 작가들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작업실을 구하고 문화공간을 열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윤대희 작가(32)는 대학에 다니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그 역시 작가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작업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항상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나만의 세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는 모든 작가들이 원하는 환경 안에 들어온 만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겸손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림으로 나이를 뛰어넘어 마음을 나누는, 홍주연 양과 장진 작가.



**‘작가와 시민’이 함께 누리는,
진짜 예술**

장진(45)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1기 출신이다. 후배 입주 작가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 그는 지금껏 인천과 인연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 10대 때 인천으로 와 학창시절을 보내고 강화에 작업실을 뒀다. 대구대학의 강단에 서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인천 영종도에 머물고 있다. 인천의 예술가로서 그는 인천아트플랫폼이 자랑스럽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도시의 갤러리에 작품을 걸었지만, 이만한 곳이 없다. 지난달 그는 B동 전시장에서 개인전 ‘작가의 작은 풍경’을 열고, 달을 소재로 한 ‘달빛프리즘(Moonlight Prism)’ 연작 등 60여 점을 선보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생기면서 인천으로 전국 작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훌륭한 전시장에 자신의 작품을 걸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만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은 없습니다. 이곳에 제 작품을 걸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후 8시 30분, 인천아트플랫폼에 화려한 영상 아트쇼가 펼쳐진다.

패션디자이너인 김진아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에서 먼 발걸음을 했다. “달 그림이 아주 멋져요.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달이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열한 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작가의 작은 풍경’은 소소하지 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외지인의 시선에도 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의 훌륭한 아지트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라 일컫는 서울도, 이처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인천아트플랫폼은 옛 건축물을 아름답게 되살린 구조도 돋보이지만,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하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에요.” “그림을 봤으니, 우리는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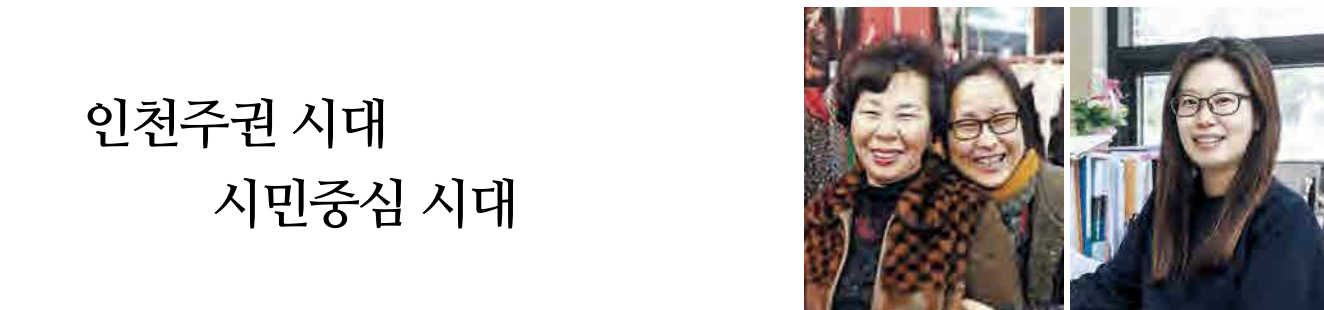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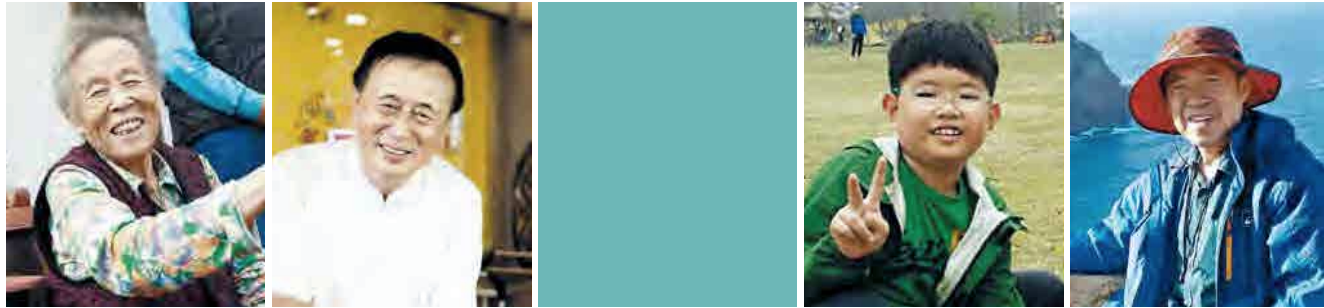
모녀가 마음을 꽉 채우고 환한 얼굴로 문을 나선다. 개항장, 차이나타운, 월미도... 이제 ‘인천’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보러 갈 차례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가 남긴 근대건축물이 오늘날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간의 다양성이 담긴 건축물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다. 여기에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생산해낸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천아트플랫폼이 풍요롭게 채워지면서 전국에서도 찾는 지역의 명소가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인천아트플랫폼은 ‘작가와 시민’이 모두 필요로 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장에 포토존과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마다 영상아트쇼를 열고, 시민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을 여는 등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작가와 시민이 함께 누리는 ‘인천의 진정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꽃필 인천아트플랫폼의 새 날이 기다려진다.



시간을 넘어 예술을 창조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주권 시대 시민중심 시대



이제 '인천주권' 시대다. 우리 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민생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인천주권 시대를 연다. 당당한 인천주권 시대,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노시훈 시 대변인실



지난
2년간의

성과

빛 줄이고, 문제 풀고, 희망 열다

2014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6기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빛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변화는 놀라웠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 인천시 총부채가 13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크게 감축됐다.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조 8천 5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인천발 KTX는 기본계획 용역비 70억 원이 반영돼 가시화되고 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식을 체결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권도 인천의 품으로 돌아온다. 특히 인천의 정체성을 찾아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드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본격화됐다. 우리 시의 정신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부가 50년 만에 개방돼 시민의 품에 안겼다. 인천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돼 6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6월 27일 '민선6기 2주년
기자 설명회'에서 2년의
시정운영 방향인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 시대 열기'를
주제로 얘기 하고 있다.

시민행복 더하고, 인천주권 시대 연다

앞으로 2년, 우리 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민생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인천주권 시대를 연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6월 27일 민선 6기 2주년 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2년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주권 시대 열기'로 선언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지난 2년은 '빛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에 집중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 그 결과 재정 건전화와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2년은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는, 인천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향후
2년간의

계획

시민 행복+1

민생주권

시민 행복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권」 시대 연다

먼저 '시민의 행복'이 시의 정책과 예산을 정하는 최우선의 가치라는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이에 우리 시는 인천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인천형 복지모델'을 정립하고,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곳에 재정을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인재를 고용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의 공공기관과 문화·편의시설을 유치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시민 행복+3

해양주권

해양문명도시 인천의 「해양주권」 되찾는다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 2025년까지 2조3천억 원을 투입해 섬으로 가는 접근성과 도서민의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168개 보물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와 함께 아암물류단지와 영종도, 청라지구 등 10곳의 해안 철책 33.4km를 걷어내 바다를 온전히 되찾는다. 또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과 연계한 인천 내항 재개발 및 친수 공간 조성사업, 마리나 항만 확충 등을 통해 인천이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특히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서해 5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산업을 활성화**한다. 그리하여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시민 행복+4

환경주권

미래세대 위한 「환경주권」 정상화에 집중한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인천의 권리를 찾고, 대체 매립지 확보, 주변 지역 환경개선,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건립 등을 통해 그 혜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준다. 그리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도시로서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 함께하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해 인천 녹색 종주 길을 완성, 도시에 짙푸른 녹음을 드리운다.

시민 행복+5

그리고
소통과 협치

인천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다

시는 '민생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을 바로 세우고 시민 행복을 더하는, 인천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소통과 협치**'로 풀어낸다. 현장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다.

유 시장은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다.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일하겠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구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등을 더욱 확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인천은 다양한 지역 출신 시민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대한민국과 같다"며 "도시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이정표**라는 사명감을 안고,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인천주권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인천주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시민 행복+2

교통주권

인천 중심의 「교통주권」 시대 연다

인천발 KTX, 인천-서울 간의 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교통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발 KTX는 기본계획 용역비 70억 원이 반영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1년까지 인천발 KTX를 개통하면 인천에서 부산 등 전국을 단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또한 인천-서울 GTX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다. GTX를 개통하면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7호선 청라 연장 등을 통해 인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 특히 인천을 남북으로 갈라놓던 **경인고속도로가 50년 만에 인천 품으로 돌아온다**. 또 도화C~문학C 연결, 서창~장수~계양지·정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남북 도로망을 확충**해 시민들이 인천 전역을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도록 한다.



인천 어린이 행복 더하기 업무협약식

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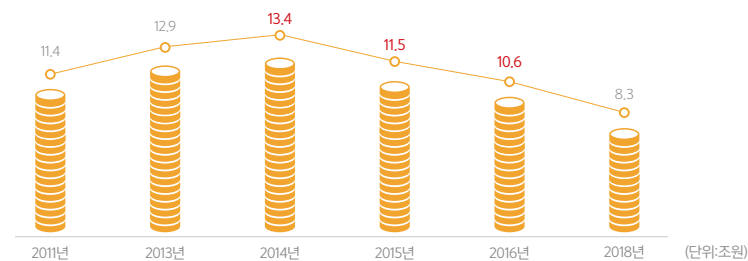
‘시민 삶에 행복을 더할’ 기본 조건은 무엇보다 경제다. 시는 인천 하늘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재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2018년까지 인천을 ‘재정 정상 단체’로 바로 세운다. 앞날은 희망적이다. 현재 인천시 총부채는 13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줄고,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조 8천 5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인천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살기 좋아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부채는
‘OUT’

인천시 총부채 2조 원 감축

민선 6기가 닳을 올릴 당시, 시와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부채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13조 4천 293억 원이었다. 하지만 세출 구조 혁신, 세입 확충, 공무원 수당 감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2016년 6월 기준 11조 4천 485억 원(잠정)으로 1조 9천 808억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10년 이상 증가하기만 하던 시 본청 채무도 지난 2015년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오롯이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3년 후면 재정 정상 단체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시는 각고의 노력과 예산절감을 통해 올해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천 297억 원 외에도 채무 3천 34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 또한 이자 842억 원을 갚아 과거 최대 39.9%까지 이르렀던 시 본청 채무 비율을 31%대로 낮춘다. 그리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재정 정상 단체로 바로 세운다.

TIP

부채가 감축되면?
시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 어르신 지원 확대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 ▲ 공공 인프라 확충
- ▲ 관광 활성화
- ▲ 원도심 재창조
- ▲ 문화·체육시설 확대

돈은
‘IN’

2016년도 국비 증가율 전국 1위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2조 8천501억 원 확보

인천시는 2016년도 역대 최대인 정부지원금 2조 8천50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는 2015년 보다 17.6%, 2014년보다는 21.3% 증가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 차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2년 연속 4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전국 최대(서울, 세종 제외)의 국비 증가율이라는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시비가 들지 않는 국비 지원 비율을 지난해 63%에서 69%로 대폭 상승시켜 인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보통교부세 획기적 증가

인천시는 보통교부세는 불(不)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환된 2008년에 불과 23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2014년 2천 338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는 2015년에는 4천 307억 원으로 약 8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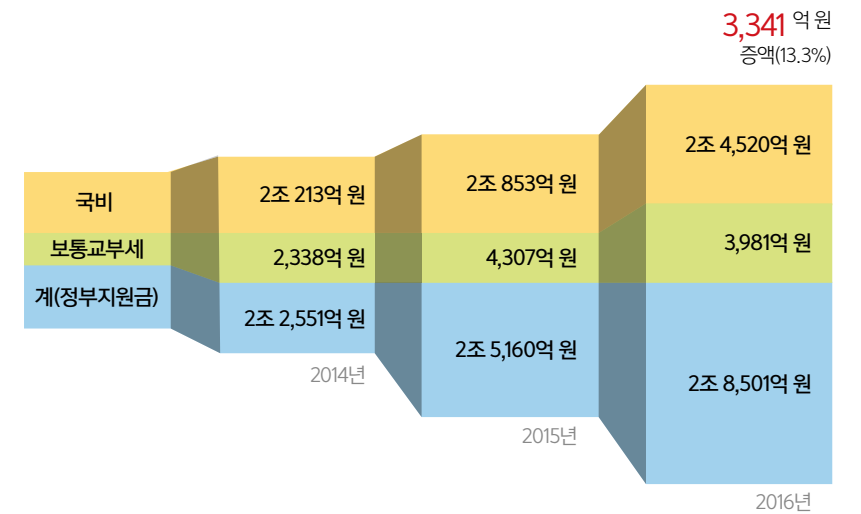
2016년도 국비 2조 4,520억 원 17.6%▲



국비 증가율 전국 1위



2015년도 보통교부세 4천 307억 원 84%▲



내일,
부자도시
인천

2016년 올해는 재정 건전화 실천의 해다. 시는 징수율 제고, 세원관리, 세무조사, 감면 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지출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시장 취임 때 1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간 2조 원 이상을 줄여 재정건전 단계로 왔다. 이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3%대로 낮아졌다. 2년 내 재정 건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



그 안은 지금 한겨울, 아이스링크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여름의 절정, 탈출할 곳이 필요하다.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은 인cheon에 하나뿐인 아이스링크가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공기를 가르고 들어선 얼음 세상은 소름이 오싹 돋을 만큼 차갑다. 2015년 3월에 문을 연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국제규격의 스케이트장이다. 1층 링크는 일반 시민에게 열려 있다. 가족 친구 연인이 두 손 꼭 잡고 달리고, 넘어지면 서로를 일으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한편에서는 피겨 스케이팅이 우아한 몸짓으로 은반 위를 미끄러지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지하 1층의 링크는 빙상 스포츠 선수들과 동호회원들의 공간이다. 링크에선 때마침 우리나라 세 번째 아이스하키단인 '대명 킬러웨일즈'의 연습이 한창이다. 선수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까지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차가운 얼음판 위 사나이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한여름 더위 따위는 단번에 날려버릴 기세다.

INFORMATION 스케이팅 강습은 매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기장 홈페이지 및 현장 매표소에서 신청 받는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천 원이며, 스케이트 대여료는 3천 원. 지하 1층에는 컬링 경기장이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선학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선학 국제빙상경기장

연수구 경원대로 526

운영 일시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문의 821-5723, www.seonhakicerink.or.kr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해를 피하고 그늘을 찾는 데 급급하느라 몰랐다. 여름이기에 누릴 수 있는 낭만과 여유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씻어 내면, '아, 여름은 참 멋진 계절이구나' 싶다. 그냥 보내기엔 길고도 무더운 여름. 온도는 내리고 낭만은 올리는 도심의 피서지를 찾아서.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김상덕 자유사진가

여름의 절정, 얼음 세상으로 탈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욕망은, 피어리를 북극점에 아문센을 남극점에 다다르게 했다. 오늘날 극지는 인류의 미래와 연결된 연구의 대상이다. 극지체험 전시회가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남극조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극지연구소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이 있는 극지연구의 중심지 인천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 한다. 극지 영상 체험존의 스크린에선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과 빙하, 오로라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북극의 눈물'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극지 연구 장비 체험존에선 1분 거리에도 10년은 버틸 옷을 입고 나서야 하는 극지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

INFORMATION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임학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다. 전시 외에도 남극 대원과의 화상 통화, 아라온호 조립대회, 황제펭귄과 북극곰 종이접기 등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2016 극지체험전시회

계양구 방축로 21

인천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

운영 일시 8월 28일(일)까지.

화요일~일요일(월요일은 휴무)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70-4470-9011,

www.icsmuseum.go.kr





계양 워터파크 & 피크닉장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체육공원 내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운영 일시 8월 21일까지.
문의 1588-6180



시원하게 물놀이 후, 바비큐 타임

물이 있는 곳이라면, 특별한 계획 없이도 이 여름이 즐겁다. 굳이 규모가 큰 워터파크를 찾아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dot자리 하나 달랑 들고 가 한나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물놀이장이 동네에도 얼마든지 있다. 올여름 계양 아시아드양궁장에 근사한 야외 수영장 과 피크닉장이 들어섰다. 대형 성인풀, 청소년풀, 유아풀 등 7개의 수영장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이동식이라 기존의 워터파크에 비해 스릴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30미터에 이르는 대형 슬라이드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탈 수 없을 만큼 짜릿하다. 스파이더맨이 돼 인공 암벽을 오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자연 안에서 모처럼 여유도 누릴 수 있다. 약 2만 2천 644㎡(6천850평)에 이르는 천연 잔디 위에는 바비큐 피크닉장이 들어서 있다. 색색의 텐트가 웅기중기 모인 풍경이 사방을 둘러싼 빌딩 숲을 줄지에 낯설게 만든다. 한바탕 물놀이를 즐긴 후 피크닉장... 지글지글 바비큐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를 시원하게 가로지른다.

INFORMATION 워터파크에는 대형 성인풀, 레저풀, 에어 슬라이드, 유아풀 등이 다양하게 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6천 원. 어린이 전용 암벽등반 체험존도 있다. 이용요금은 3천 원. 바비큐 시설은 1인 당 2천 원이며 4인 이상 이용 가능하다. 잔디 위에서 물총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풀사이드 228
연수구 해돋이로 157(송도점),
서구 경서동 346-2(청라점)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1시~새벽 2시
(브레이크 타임 오후 3시~5시),
일요일은 오후 12시까지.
문의 817-0000(송도점),
569-0228(청라점)



‘여긴 외국 아닌 송도’ 풀이 있는 레스토랑

‘풀사이드 228’은 도심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이다. 레스토랑 안에 작은 수영장이 있어 마치 따뜻한 나라의 리조트에 온 듯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전국적으로 호텔을 제외하고 풀이 있는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이곳이 유일하다. 연수구 송도동 22-8번지에 자리 잡고 있어 가게 이름에 숫자 228이 붙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낮과 밤 색다른 매력이 흐른다. 낮에는 가족이 즐겨 찾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해가 지면 연인을 위한 펌으로 은밀하게 변신을 한다. 이곳은 분위기는 물론 맛으로도 소문을 제대로 타고 있다. 추천 메뉴는 매장에서 직접 빻은 리코타 치즈에 야채를 싱그럽게 버무린 리코타 치즈 샐러드, 크림과 토마토소스에 탱글 탱글한 새우를 곁들인 슈림프 로제 파스타다. 여기에 헤밍웨이가 사랑한 ‘쿠바의 낭만’ 모히토를 한잔 들이켜면 온몸이 나긋나긋하다. 바쁜 일상에 잠시 여유가 찾아드는 순간이다. 풀사이드 228은 송도점에 이어 지난 달 1일, 청라에 2호점을 열었다.

INFORMATION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 풀장은 여름에만 예약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만 9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 가격은 파스타가 1만 5천 원 대, 피자가 1만 9천 원 대, 에이드가 5천 원 대로, 음식의 질을 생각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



이열치열, 더위잡는 화끈한 맛

덥다. 기온이 쭉 올라가니 입맛은 푹 떨어진다. 하지만 면발이 탱탱하게 살아 있는 면 요리, 이열치열 화끈하게 입맛을 당기는 맛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닭강정, 쫄면, 공갈빵... 온 세상에 입맛 당기는 먹거리 천지지만, 신포시장엔 평범하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맛이 있다.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30년 전통의 '신포 닭강정'이다. 매콤한 고추기름 소스에 흠뻑 버무려 땅콩가루를 살살 뿌린 닭강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갓 버무려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도 식감이 바삭바삭하다. 길거리 음식 호롱 낙지는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낙지를 통째로 꼬치에 끼워 돌돌 감아 소스를 발라 구워 먹는 맛이 그만이다. 손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매운맛 소스가 구미를 확 당긴다. 디저트 카페 '미암미암'은 문을 연지 한 달이 안 된 숨은 명소다. 색색이 고운 마카롱과 파이, 아이스크림이 시선부터 맛있게 사로잡는다. 천연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손수 만들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특히 솜사탕을 얹은 에이드는 한 입 머금으면, 그 달달함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INFORMATION 시장 내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에는 수유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이 있다. 경인선 동인천역 2번 출구로 나와 신포동 방향으로 100미터, 수인선 신포역 4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신포국제시장 테이스티 로드

중구 우현로 49번 길 11-5

운영 일시 오전 9시~오후 6시(매월 첫째 주 일요일 휴무)

문의 772-5812, sinpomarket.com (신포 닭강정 777-8848, 미암미암 010-8273-8285)



-2°C



-1°C

도시의 불빛 쏟아지는, 밤의 공원

그냥 보내기엔 길고도 아쉬운 여름밤, 송도센트럴파크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수평선 위로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둘 솟아오르는 불빛. 태양 아래 감춰졌던 도시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동북아무역타워와 G타워가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뿌린다. 신비로운 자태의 트라이볼은 마치 지구에 착륙한 UFO 같다. 공원 한가운데 검은 물길을 가로지르며, 그 풍경을 눈에 담아도 좋다. 중간 중간 아치형의 다리를 지나는 물길 1.8킬로미터는, 저마다 아름다움으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수상택시는 평일에는 오후 7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운행을 한다. 땀 흘리며 열대야에 당당히 맞서도 좋다. 조깅을 하거나, 공원 내 잘 닦은 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보자. 밤공기를 가르며 싱싱 달리노라면, 얼굴에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롭게 느껴진다.

INFORMATION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린다. 공원 입구에 있는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카누와 카약, 전기 보트, 자전거를 대여해 탈 수 있다. 수상 택시는 웨스트보트하우스에서 탄다. 공원을 둘러보는 데 20여 분 걸린다. 문의 송도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070-4189-4609, 웨스트보트하우스 070-4237-4609



송도센트럴파크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

문의 721-4406



“애들아 짐 싸~ 일단 떠나자!”

한낮 더위가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딱히 시원한 기운이 돌지 않는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휴가철을 맞아 뭔가 즐거운 걸 잔뜩 기대하는 눈치다. 더위도 떨쳐내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득 안겨줄 특별한 건 없을까? 이럴 땐 가까운 캠핑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웰빙 캠핑, 레저 캠핑, 감성 캠핑까지... 테마별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색캠핑장이 인기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집가



학창시절 추억에서 자연을 느끼다 _강화캠핑파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오래된 학교가 근사한 캠핑장으로 변신했다.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가는 ‘초지리’마을에 들어선 ‘강화캠핑파크’는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곳. 넓은 공간과 조용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자랑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촬영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무엇보다 널찍한 운동장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끼와 닭, 양 등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과 간이 놀이시설도 구비돼 있다. 만화영화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도 마련돼 있다. 가끔 주인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르던 양을 운동장에 풀어놓거나 가족대항 족구대회를 열어 캠핑 온 사람들 모두 친해질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실내에서는 학교 칠판에 그림그리기와 풍금치기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간단한 만들기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아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다.

information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신촌로 146번길 14-11

이용료 : 캠핑 4만 원, 글램핑, 12만 원,

인디언텐트 15만 원

문의 : 010-9005-3430

(cafe.naver.com/pp009)

하나 더! 여름에는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한다. 교실을 개조해 생활관처럼 꾸민 공간이 있어서 단체 워크숍 장소로도 안성맞춤. 전기, 온수,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장비대여실 등의 편의시설 완비.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낮엔 수확하고 밤엔 별 보고 _마리원관광농원 캠핑장

‘팜핑’(Farmping)이 인기다. ‘팜(Farm)’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 ‘팜핑’에서는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고 캠핑도 할 수 있다. 강화도 농산물에 반해 2012년 귀농을 결심한 주인장이 지난해부터 팜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마리원관광농원캠핑장’은 장흥저수지와 초지평야, 그리고 바다까지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사이트가 매력적.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서 텐트를 치든지 시원한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의 가족영농 체험단을 운영해 월별로 감자, 속노랑고구마, 섬옥수수, 강화순무 등 강화특산물 심기와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감성캠프 원목의자, 쑥쟁들, 쑥비누 등 자연 친화적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모래발놀이터가 한 편에 마련돼 있다. 바비큐장을 비롯해 언제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개수대와 건식 화장실, 깔끔한 사우나 시설은 이미 캠퍼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information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101길 6

이용료 : 평일 4만 원, 주말 5만 원

문의 : 010-9747-4377 (cafe.naver.com/mariwon)

하나 더! 캠핑을 왔지만, 막상 텐트에서 자는 게 부담스럽다면 마리원에 마련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해보자. 주로 나이 지긋한 부모님을 모시고 온 캠퍼들이 종종 이용한다.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다 _문라이트 캠핑장

여름 하면 역시 물놀이가 빠질 수 없다. 30도를 웃도는 한낮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액티브한 물놀이와 자연을 즐길 수 곳이 바로 '문라이트 캠핑장'이다. 캠핑장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웨이브와 직선의 룡 슬라이드가 설치된 '누리워터파크'가 있어 캠핑과 함께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할 수 있다. 35동의 텐트가 설치가능하고 트레일러, 캐러밴의 진입도 가능하다. 캠핑장 앞쪽으로는 갯벌이 펼쳐진 바다가 있어 시야가 좋으며 강화나들길 8코스가 인접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에 선두리 어시장이 위치해 신선한 해산물까지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것도 매력. 무엇보다 이곳 캠핑장의 매력은 호텔처럼 깨끗한 편의시설에 있다. 캠퍼 커뮤니티의 편의시설에 대한 칭찬 댓글이 감동적이다.

information

위치 :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56
이용료 : 평일 비수기 3만 원, 성수기 4만 원 / 주말 비수기 4만 원, 성수기 4만 5천 원
문의 : 010-9010-0650(cafe.naver.com/moonlightcamping)
하나 데! 사이트는 잔디와 파쇄석 사이트로 나뉘져 있으며,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의 간격이 여유로워 차를 그냥 세워놓는 루프톱도 가능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밭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갯벌체험과 그림 같은 노을을 맘껏 누리다 _바다에 캠핑장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화리 마을에 위치한 '바다에 캠핑장'은 빼어난 경관에 마음이 먼저 홀짝 반한다. 드넓은 갯벌과 솔섬을 배경으로 저물어가는 태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캠핑장 분위기는 '바다에'라는 글자에 딱 어울린다. 상큼한 갯내음, 파도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가운데 눈앞 가득 펼쳐진 매력적인 갯벌에서는 갯갯을 건져 올리는 분주한 손길을 쉽게 볼 수 있다. 노을로 세상이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해가 숨어버린 하늘엔 이내 초롱초롱한 별들이 수놓는다. 바다를 내 것처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바다에 캠핑장'은 바닥이 파쇄석으로 되어 있어 물 빠짐이 좋아 비가 와도 물이 고일 걱정이 없다.

information

위치 :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585
이용료 : 평일 비수기 3만 원, 성수기 4만 원 / 주말 비수기 4만 원, 성수기 5만 원
문의 : 010-4911-6564(badaecamping.com)
하나 데! 캠핑장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바닷바람에 모기가 많지 않다. 썰물 때 조개잡이도 가능하지만, 밀물 때는 해수욕도 가능하니 이곳을 찾을 땐 물놀이용품도 잊지 말고 챙겨 가자.



인천 도심과 숲속의 캠핑장 정보

강화도뿐 아니라 인천 곳곳에는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캠핑장이 많다. 도심 또는 숲속, 강가에서 얼마든지 캠핑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숲이 울창한 인천대공원 안에 마련된 야영장은 숲속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 면적 2만9천370㎡에 야영지 103면으로 드넓게 조성된 이곳은 잔디광장, 매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을 갖추어 편리함을 높였다. 자카텐트존, 폴세트존, 반세트존, 단체존, 임대 텐트존이 있으며, 비용은 2만1천 500원~15만 원 선이다.

(문의 465-2600, iparkcamp.com)

송도스포츠캠핑장

송도스포츠캠핑장은 송도스포츠파크 내에 위치해 스포츠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수영장, 스쿼시장, 인공암장, 축구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박이 가능한 숙영지역과 간단하게 바비큐만 할 수 있는 피크닉존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특징. 4인 기준 평일 1만 3천 원, 공휴일 1만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피크닉존은 1일 3천 원으로 저렴한 이용료가 매력적.

(문의 899-4887, www.eco-i.or.kr/camping)

아라뱃길두리생태공원캠핑장

경인아라뱃길에는 파크웨이와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생태공원이 푸르게 드리워 있다. 아름다운 수향 6경인 두리생태공원 안에 캠핑장이 있다. 요금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아라뱃길 곳곳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간당 4천 원으로 저렴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10-3824-0426, www.riverguide.go.kr)

왕산가족오토캠핑장

영종도 서쪽 끝에 위치한 왕산캠핑장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지만, 숲속 야영 분위기도 한껏 느낄 수 있다. 텐트가 부담스러운 초보 캠퍼들을 위한 다양한 캐러밴과 글램핑장이 마련되어 있다. 요금은 성수기 토지 4만 원, 데크 5만 원, 캐러밴 12만 원~18만 원, 글램핑 14만 원~16만 원

(문의 1588-3266)

인천송도국제캠핑장

송도 근린공원에 위치한 인천송도국제캠핑장은 TV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가 이용했던 캠핑장으로 유명세를 떨친 곳. 공원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탁 트인 인천 앞바다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다.

(문의 815-5008, www.hobbitla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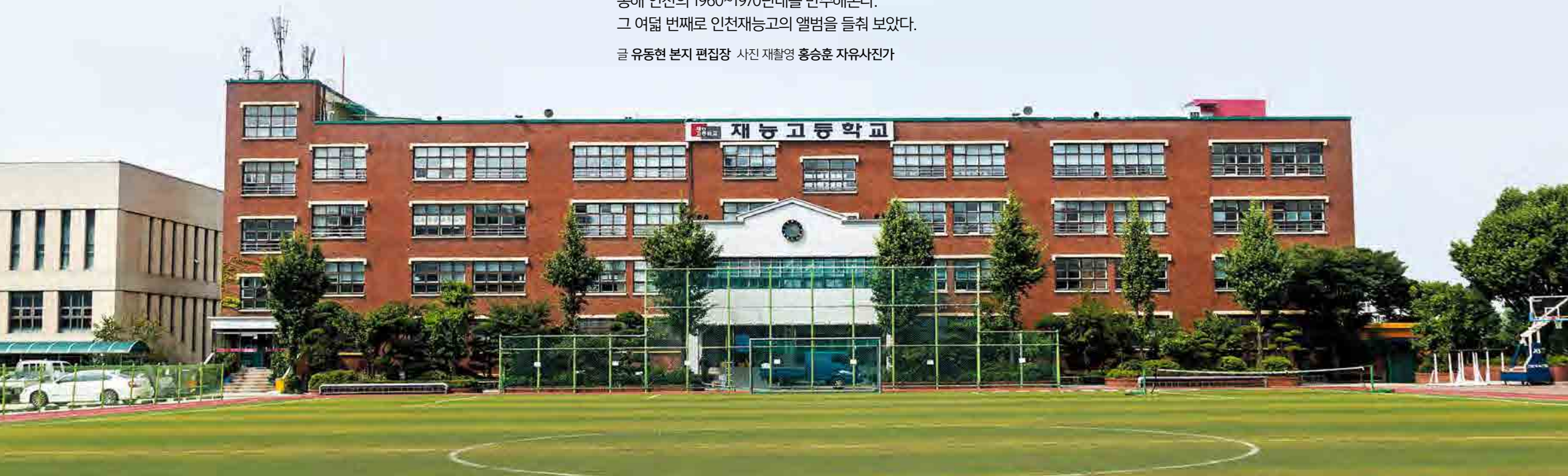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필통신념 이 땅의 통신 기술을 이끈다

졸업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 기념사진 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 잡은 포즈나
학교 밖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이다. 지역 내 고교 앨범에 수록된 사진을
통해 인천의 1960~1970년대를 반추해본다.
그 여덟 번째로 인천재능고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아버지는 아들이 여자가 되겠다고 하자 충격에 빠진다. 실패한 권투선수 출신 아버지는 아들 동구를 인천재능대학 밑 공터로 끌어내 개 패듯 때린다. 동구는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간신히 씨름대회에 참가한다. 그리고 우승과 함께 상금을 받는다. 얼마 후 그는 친구들의 환호 속에 'Like a virgin'을 열창하면서 빨간 드레스 입은 '마돈나'가 된다. 그는 우승 상금으로 성 전환자가 된 것이다. 딱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의 줄거리다. 영화 속에서 오동구(유덕환 분)는 송림동 '부처산' 동네에 산다. 부처산은 인천재능대학과 옛 선인재단 사이의 야트막한 산이다. 돌부처들을 안치한 일본 절이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산 모양이 부처의 형상이라 하여 '부처산'이라 불렀다. 토박이들은 발음하기 좋게 '부채산'이라고도 불렀다.

인천재능대학 손장원 교수는 '조선명소 인천팔십팔개소 본도(朝鮮名所 仁川八十八箇所 本道)'라고 인쇄된 사진엽서를 찾아낸 이후 1930년대에 발행된 지도 등 자료 수집을 통해 얼마 전 이 지역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에 의하면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순례를 위한 6만6천㎡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었고 210여 기의 석불을 안치한 사찰이 건립됐다. '부처산'이라는 이름은 당시 석불 등을 본 주민들이 부르기 시작했음이 명확해졌다. 광복 후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특히 6·25전쟁 후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산동네가 됐다. 전쟁 직후인 1954년 무선 기술 전문가 노진철(1921~1992) 씨는 학익동 허허벌판에 허름한 단층 교사를 짓고 '인천무선학교'를 열었다. 무선통신과, 전기기술과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모尔斯 부호와 진공

각 학교 개재 월호

1월호 인천여상	5월호 중앙여상
2월호 동산고	6월호 인천대건고
3월호 인성여고	7월호 인천해양과학고
4월호 인천기계공고	



관 라디오 조립 등을 가르쳤다.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의 그는 1941년 중국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했다. 1959년 무선학교는 송림동 부처산 꼭대기에 새로운 등지를 틀었다. 1965년 미군으로부터 시멘트와 철근의 원조를 받아 교사를 짓고 운동장을 넓히는 등 학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부처산 주변으로 박문여자중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선인재단 전신) 등 다른 학교들도 자리 잡았다. 1969년 무선고의 교명은 대현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당시 모尔斯 신호 등 무선 기술이 각광받던 시절로 졸업생들은 체신부, 방송국 등에 취업했다. 1970년 현 인천재능대학의 전신인 대현전자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됐다. 재능교육이 대현학원을 인수하면서 대현공전은 인천재능대학으로, 대현중은 인천재능중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현공고는 재능유비쿼터스고로 교명을 잠시 변경했다가 2014년 현재의 인천재능고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율목동 시절의 시립도서관(64년도 앨범)

1922년 현 자유공원 내 송학동 청광각에서 인천부립도서관이 개관했다. 1941년 신흥동 (구)인천 지방법원청사로 이전했다가 1946년 인근 율목동 일본인 정미업자의 별장 자리에 다시 터를 잡았다. 시립도서관은 6·25전쟁 통에 5천 권이 분실 혹은 소실되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참고열람실을 개설하는 등 한동안 전국 도서관의 '모델 하우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8년 말 폐관을 결정한 후 구월동에 새 터를 마련하고 '미추홀도서관' 간판을 새로 달았다. 사진 속 율목동 자리는 현재 율목도서관이 개관했다.

찬바람 속 보건체조(61년도 앨범)

부처산은 인천 시내에 솟은 봉우리 중 하나이다. 지금도 이곳에 서면 웅만한 곳의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지대에 속한다. 학교에서 서쪽을 향해 찍은 사진이다. 가깝게는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송림동 활터고개 일대가 보이고 멀게는 가운데 월미도, 오른쪽으로 영종도 백운산이 솟아 있다. 당시 보건체조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학교나 공장에서 실시했던 체조의 모습이다. 살 찐 학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옛 인천시청, 현 중구청(60년도 앨범)

학생들이 마음먹고 인천시청을 찾아 한 컷 찍었다. 지금은 중구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원래 시청사였다. 개항기에는 일본영사관이 설립된 곳이다. 옛 시청사는 일제가 인구 6만8천 명이었던 시절(1932년 8월) 인구 10만 명을 대비해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이다. 1933년 지하 1층, 지상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다. 광복 후 인천시는 64년 인구 50만 명이 증가한 추세에 맞춰 본관 한 층을 증축했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인구 114만)되면서 신청사를 계획했고 1985년 구월동 현 부지에 시청사를 건립했다. 사진 속 원형 창문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다.

시립박물관의 중국 범종 (60년도 앨범)

현재 자유공원 기슭에 자리 잡은 제물포구락부는 한때 시립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 그 앞에 커다란 종이 자리 잡고 있어 '포토존'으로 인기가 좋았다. 이 종은 송(宋)·원(元)·명(明) 시대의 대형 범종이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출해 온 종이다. 인천육군조병창(부평)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 패전하는 바람에 놓고 간 것을 당시 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었던 이경성 씨가 옮겨 놓은 것이다.



동인천역 풍경(61년도 앨범)

'동인천역'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1955년이다. 1899년 경인선 개통 시에는 축현역이었고 1926년 상인천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8년 다시 축현역으로 되돌아 왔다가 동인천역으로 개명했다. 사진 속 동인천 역사는 1957년 12월 23일에 건립됐다. 역사 벽면에 걸린 '간접자수기간'이란 현수막과 광장 한가운데 솟은 나무 전봇대가 이채롭다. 1989년 동인천 민자 역사가 들어서면서 이 대합실은 철거됐다.



추억의 동방극장(58년도 앨범)

외화 개봉관으로 유명했던 동방극장은 1946년 이전에 개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일의 <인천석금>에 "뉴스극장으로 발족해 인천 영화의 전당이 된 동방극장은 정치극 씨 사망 후 김윤복 씨가 축항사를 인계하여 홍사헌 씨에게 위임했던 것인데, 해방 후 애관과 작별하고 동방만 직영하다가 객사했다."라고 언급돼 있다. 기존 극장보다 규모가 작은 영화관으로 3층 영사실과 1층 스크린의 거리가 가까워 스크린 자체를 비스듬히 누워 놓았다고 전한다. 극장 폐관 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얼마 전 극장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차장이 되었다.



대한중공업과 돌산(60년도 앨범)

학교 주변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모습이다. 높게 솟은 굴뚝에 '대한중공업공사'라고 적혀 있다. 대한중공업은 1941년 설립돼 요철을 생산한 조선이연금속의 후신이다. 광복 후 조업이 중단되었다가 대한중공업으로 재가동되었고 인천제철로 이어졌다. 이후 1978년 4월 현대그룹으로 흡수되면서 '현대제철'로 그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옆에 보이는 산은 채석장이 있어 '돌산'이라 불렸고 그 위로 피란민들이 모여 살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대제철 시찰 중 철거 지시가 떨어졌고 1982년 5층짜리 공영아파트 송현리이프가 들어섰다.



01-02 “스돈돈돈 스돈스 돈돈돈돈 돈스” 한때 모리스 부호로 통하는 무선은 각광 받는 기술이었다. ‘必通之信念’(반드시 통한다는 신념)으로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59, 69년도)

03 공수도 동아리 회원들의 ‘오묘한’ 포즈. 사진사의 주문에 비장하게 품을 잡았을 텐데 보는 사람은 전혀 비장하지 않다. 특히 앞줄 가운데 학생은 손보다 엉덩이에 시선이 간다.(67년도)

04 예전에 멀리서 대한공고 교사를 보면 옥상 위에 솟은 설치물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들 스스로 ‘대현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실습용 레이더였다.(69년도)

05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교련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의장대 시범을 보이는 대한공

고, 행사 후 여고생들이 쪽지 편지를 건네는 등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했다.(74년도)

06 70년대 만해도 강화 석모도는 낙도였다. 대한공고 학생들이 낙도 봉사를 가서 아이들 머리를 바리칸으로 깎아주는 모습. 구경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천진난만하다. (75년도)

07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앞바다 섬 아이들이 도시 나들이 일정 중 대한공고를 방문했다. 자동차와 학생들이 조립한 실습용 자동차를 보고 신기해하는 섬 아이들.(75년도)

08 교묘를 쓰고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과 넓은 농구대 백보드의 모습에서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59년도)



마라톤 강자, 무선교

인천은 일제강점기부터 마라톤의 도시였다. 광복 후에도 그 열기는 이어졌다. 1959년 9월 28일 ‘제1회 9·28수복기념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국제마라톤’이란 타이틀이 걸린 최초의 대회였다.

인천은 전국 고교 마라톤에서도 강자 속에 속했다. 그 중심에 무선교가 있었다. 특히 인천~서울 구간을 나눠 달리는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인천 출발지는 중구 해안동로터리나 동인천역전이었다.

특히 해안동 로터리는 우리나라 마라톤의 성지(聖地)와도 같은 곳이다. 인천시는 66년 6월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제1회 9·28수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기념비를 세웠다. 현재는 선교 100주년 기념탑 공원 안에 그 기념비가 있다.



hot & cool

‘록’으로 뜨겁게, ‘맥주’로 차갑게

올여름, 송도국제도시에서 화려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음악축제 ‘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체감온도를 시원하게 내릴 ‘송도세계문화축제’. 뜨겁게 때론 차갑게, 일상을 에너지로 꽉 충전하는 축제가 있어, 이 여름이 즐겁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밴드 크래쉬(Crash)

hot

2016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대한민국 ‘진짜’ 록 페스티벌이 온다

1999년, 트라이포트라는 이름으로 록의 불모지에 피어난 초특급 록 페스티벌. 프로디지(The Prodigy), 레이지 어겐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 딥 퍼플(Deep Purple)…. 출연진은 화려했고 관객의 열정은 뜨거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막을 내려야 했고, 축제는 그로부터 7년 뒤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진짜’는 세상도 알아주었다.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지난해 영국의 타임아웃 매거진(Time Out Magazine)이 선정한 ‘성공적이고 주목할 만한 세계 음악 페스티벌 50’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또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뽑히기도 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축제는 한층 젊고 탄탄해진 라인업으로 더 화려하게 펼쳐진다. 첫날의 헤드라이너 스웨이드(Suede)는 90년대 브리티시 록의 전성기를 재현한다. 한국 스래시 메탈계의 살아있는 전설 크래쉬(Crash)의 강력한 사운드는 심장을 고동치게 할 것이다.

둘째 날에는 경쾌한 사운드의 위저(weezer)가, 셋째 날에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팻 더 디스코(Panic! At The Disco)와 청량한 일렉트로 팝 록의 대세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이 각각 헤드 라이너로 무대에 오른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아무 스케줄도 잡지 말라.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여름휴가. 가슴 저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열정의 에너지로 살아 있음을 느낄 것이다.

기간 8월 12일(금)~14일(일) 3일간
장소 연수구 센트럴로 350 달빛축제공원
요금 1일권 13만 원, 2일권 18만 원, 3일권 22만 원, 캠핑권 1만 5천 원
문의 1644-1118, www.pentaportrock.com

해시태그 #대한민국 원조 록 페스티벌 #한국의 우드스톡
#3일간의 음악 캠핑 #크래쉬 #스웨이드
#위저 #팻 더 디스코 #투 도어 시네마 클럽

cool

2016 송도세계문화축제

맥주, 하늘 날아 시원하게 착륙

“독일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부럽지 않다!” 새하얀 거품이 붕긋하게 올라온 맥주와 푸짐한 먹거리, 화끈한 음악으로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자.

지난 2015년 송도세계문화축제가 열리기 몇 시간 전, 축제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축제가 시작되자 2시간 만에 맥주가 동나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음악과 불꽃놀이로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9일간의 축제를 즐긴 관람객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

2016년 여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축제가 송도국제도시를 다시 뜨겁게 달군다. 우리나라 최대 맥주 축제인 ‘2016 송도세계문화축제’가 이달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세계 맥주를 음미할 수 있다. 술이 있는 곳에 맛깔난 안주가 빠질 순 없는 법. 유명 셰프가 요리하는 다채로운 먹거리는 미각뿐 아니라 오감까지 짜릿하게 만족시킨다. 해가 지면 전설의 라이브와 K팝 댄스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인천 N스타 등 화려한 음악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는 ‘맥주, 날다’를 테마로, 드론으로 맥주를 나르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기간 8월 26일(금)~9월 3일(토) 9일간
장소 연수구 센트럴로 350 달빛축제공원
요금 무료 입장
문의 830-0605, www.songdobeeer.com
해시태그

#드론 맥주 배달 #한국의 옥토버페스트
#100가지 세계 맥주 #전설의 라이브
#K-Pop 댄스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유명 셰프 5인방의 푸드 트럭



08 August

CULTURE CALENDAR



09 화	2016 서머 페스티벌 모스틀리 필하모닉의 ‘교향악의 세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0 수	2016 서머 페스티벌 코리아솔로이스트 오케스트라의 ‘관현악의 매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1 목	2016 서머 페스티벌 인천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배낭여행 - 이태리편 ‘청소년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1만 5천 원 ☎ 500-2000
12 금	2016 서머 페스티벌 인천시립합창단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2016 서머 페스티벌 소프라 호른앙상블의 ‘Festival and Dance’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3 토	2016 서머 페스티벌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with 프라임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2016 서머 페스티벌 Hello 성악 ‘저음의 감동, 바리톤VS바리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5 월	광복절 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 440-2213
17 수	커피콘서트Ⅷ 연극 ‘염쟁이 유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에스빠냐 아리랑’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전석 무료 ☎ 500-2000
19 금	가족매직컬 ‘마법의 버스 타고’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 1566-6551

	양상불 다나루의 ‘마음으로 그린 노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전석 2만 원 ☎ 500-2000
20 토	인천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인천노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21일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88-2341
	휴먼코미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2시, 5시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760-3457
25 목	언더그라운드 in 인천 Frist CONCERT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만 원 ☎ 010-5737-9223

	i신포니에타+음악소품 ‘아주 특별한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오후 8시 2만 원 ☎ 834-1055
26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차세대 지휘자 데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1588-2341
27 토	미디어 판놀이 ‘집 나간 남구를 찾아라’ -남구는 요지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28일 오후 3시, 6시) 초대 ☎ 880-4094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8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R석 2만 원, S석 1만 5천 원 ☎ 010-9507-1132

28 일	동화발레 무용극 ‘신데렐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27일 오후 3시, 7시) R석 3만 원, S석 2만 5천 원, A석 2만 원 ☎ 580-1163
30 화	제21회 인천여성가족재단 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 511-3141
31 수	제9회 인천청소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초대 ☎ 821-9901
	‘모닝 콘서트’ 현악 4중주 ‘양상불 그리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오후 12시 전석 1만 5천 원 ☎ 580-1166

| 이달의 展 |

이선호 송영주, 꿈의 공간전 8월 2~16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4회 김상호 개인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인천예술고, 테마공모전 8월 19~30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천대조형연구소, into blossom2016전 8월 2~16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인천서각협회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소전시실	제5회 이은하 개인전 8월 19~30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지구촌 나눔 가족 ‘희망편지쓰기’ 전시 8월 5~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2016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청구화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한국의 산화전 8월 24~9월 4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그룹‘1279」 8월 5~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빛마중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2016글로벌書畵 오케스트라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7회 미추홀한글서예협회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아름다운 도시 숲, 보호수, 큰나무 사진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그림나무 제5회 정기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時間

인천에서 처음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

‘인천의 구석기-고르다 깨다 쓰다’

검단선사박물관은 인천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10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그동안 인천지역에서 조사 연구된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인천의 구석기 시대와 출토 유물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글 박진영(검단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검단선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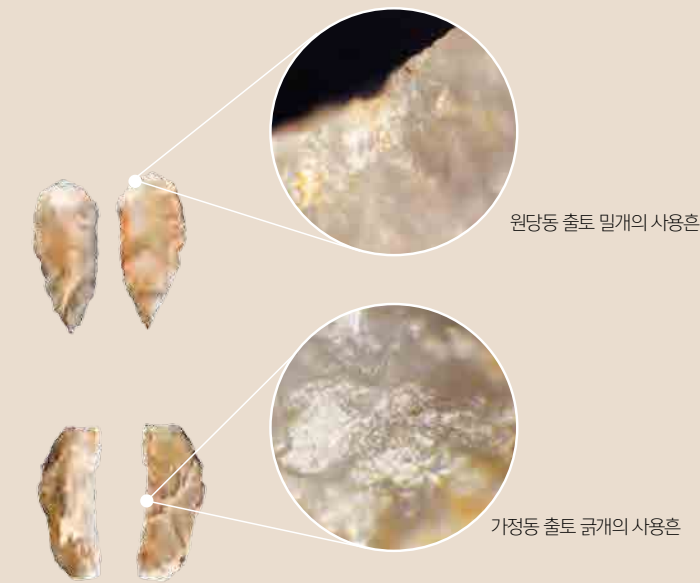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매년 인천에서 발굴된 유물로 특별전을 열어 왔다. 올해는 구석기를 주제로 한 ‘인천의 구석기-고르다, 깨다, 쓰다’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늘날을 상징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이라면 까마득한 옛날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도구는 무엇일까? 바로 주먹도끼라는 석기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확인되고 있다. 인천의 구석기 유적은 대략 6만5천 년 전부터 2만 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대부분의 석기가 출토된 토층을 측정한 절대연대로 따진다. 석기의 종류로는 주먹도끼, 찌개, 몸돌, 여러면석기 등 대형 석기와 긁개, 홈날, 톱니날, 밀개 등 소형 석기 등이 있다. 이는 한국 구석기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석기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른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만능 도구 주먹도끼가 전시되어 있다. 주먹도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 시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만능 도구라 부르는 것은 앞에 뾰족한 부분으로는 찌르는 기능을, 옆의 날 부분은 베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류는 수렵·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했고,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를 따 먹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늦은 구석기 시대가 되면 작은 석기들이 제작되고,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기능을 갖는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번 전시에는 인천 출토 구석기 100여 점 외에 구석기 시대의 석기 제작과 활용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과 일러스트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 인천 지역 특별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인천 출토 대형 석기



인천의 구석기- 고르다 깨다 쓰다

일시 7월 12일~11월 13일(오전 9시~ 오후 6시, 입장 마감은 5시 30분)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440-6795

NEWS BRIEF



INSIDE

KTX 타고 ‘인천 섬나들이’ 떠나요~

뽀로로·타요·코코몽이 인천소식 전한다

송도에서 코리아 뷰티 엑스포

2018년 인터내셔널 크라운, 송도에서 개최

인천의 미래 ‘신인(新仁)여성’이 주도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우리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꼽혔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 118 나라 342 도시 가운데 한국의 인천이 안전지수 90.89, 범죄지수 9.11을 각각 얻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평가항목별 지수는 0~100 구간을 척도로 안전지수는 높을수록, 범죄지수는 낮을수록 각각 치안이 잘 유지된 도시로 분류된다. 특히 인천은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 시간 안전지수는 90.38, 밤 시간 안전지수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 안전한 도시는 일본의 교토, 한국의 서울, 터키의 이스키셰히르, 독일의 뮌헨 순이었다.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는 온두라스 북부 도시 산 페드로 술라가 선정됐다. 한편 넘베오는 전 세계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국가 조사와 유사한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일본 오사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됐다.

KTX 타고 ‘인천 섬나들이’ 떠나요~ 우리시와 코레일은 지난달 30일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돼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KTX 연계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KTX 연계 인천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여름 바캉스 특집으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인천 나

들이 1탄 ‘인천 섬나들이’ 여행상품은 천혜 관광지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계한 것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일에 맞춰 운행됐다. ‘인천 섬나들이’ 여행은 KTX를 통해 인천공항역으로 도착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된 자

기부상열차를 시승하고,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객선, 연계차량 등 다양한 교통편을 체험하며 천혜 관광지 무의도로 향한다. 문의 시 교통정책과 ☎440-3852,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뽀로로·타요·코코몽이 인천소식 전한다 우리시가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시정 홍보와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지난달 15일 시청에서 아이코닉스, 올리브 스튜디오와 캐릭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인천어린이 행복더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뽀로로’, ‘타요버스’ 및 ‘코코몽’ 등의 캐릭터를 통해 시정정보와 공익캠페인에 관한 각종 공익콘텐츠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 달 28일부터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앞에 시내마 버스 ‘꼬마버스 타요’를 설치해 어린이전용 영화인 봉봉 어드벤처를 상영 중이다. 문의 시 대변인실 ☎440-3052



송도에서 코리아 뷰티 엑스포 화장품산업의 유행을 이끌어 갈 ‘2016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엑스포(K-Beauty&Cosmetic

Expo 2016)’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관광공사와 (주)엑스포럼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메이크업, 원료·포장, 피부·바디케어, 헤어·두피케어, 네일·풋·타투, 홈헬스케어·이너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수출 상담회, 의료관광 세미나, 뷰티 전문가 세미나 등 전문적인 부대행사와 뷰티토크, 이색 메이크업 쇼 등 관람객 대상의 체험·문화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문의 엑스포 전시사무국 ☎02-6000-6693·6696



2018년 인터내셔널 크라운, 송도에서 개최 2018년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지난달 2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메릿 클럽에서 차기 대회 개최 장소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선정, 발표했다. 한편 송도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201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주최로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이 맞붙는 프레지던트컵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843

인천의 미래 ‘신인(新仁)여성’이 주도한다 우리시는 지난달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발굴해 온 인천의 여성전문인력-신인(新仁)여성을 대상으로 제1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를 위해 시정참여 활동을 약속한 ‘신인(新仁)여성’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야별 시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인(新仁)여성’은 우리시가 민선6기 출범 이후 300만 인천 시대에 걸맞은 양성이 평등한 희망 공감 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이라는 인적 자원의 재창조를 강조하고, ‘우리는 인천’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은 명칭이다. 문의 시 여성정책과 ☎440-2697

경제청, 2030 비전 선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를 2030 비전으로 설정했다. 인천이 1883년 개항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한창해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도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9일 비전 선포와 함께 글로벌 경제 플랫폼 구축, 서비스산업 허브, 융복합 산업 허브, 친환경 스마트시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50개의 국제 기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13개 국제기구가 송도에 입주해 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103



NEWS BRIEF



아라온호 입항...인천시 ‘극지 연구 메카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남극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달 11일 모항인 인천항에 들어왔다가 20일 북극으로 출항했다. 아라온호가 인천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시는 아라온호에 대한 환영 행사를 열고 극지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시는 2006년 남극과 북극 연구를 총괄하는 극지연구소를 송도로 이전한 데 이어 인근에 테마파크형 극지교육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라온호에 이어 2020년 건조 예정인 제2 해빙선의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해 극지연구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특히, 우리시와 극지연구소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393



인천브랜드 개발을 위한 콘서트 개최 우리시는 지난달 16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인천 대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 학생, 외국인 등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 브랜드 추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인천

브랜드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인천 브랜드 콘서트는 인천 브랜드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인구 300만 인천시의 미래비전과 가치, 인천시의 특·장점 등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 교체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모으기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9월까지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일반시민포함,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인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게 된다. 문의 도시경관과 ☎440-4794



여성행복도시 위한 ‘애인토크 콘서트’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14일 오후 재단 대강당에서 인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장과 함께하는 애인(愛仁)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인천이 여성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 지역 여성, 싱글맘,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한 시민들과 취업준비생, 워킹맘, 다둥이 가족, 경력 단절 여성, 베이비부머를 대표한 시민들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선투표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공감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인천여성가족재단 ☎517-1926



전국 첫 광역형 ‘고용복지 센터’ 문을 열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시에 문을 열었다. 시는 지난달 22일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옆에 자리한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개소식을 가졌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 관련 기관이 하나의 건물에 모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공간으로, 자치구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던 기존 고용복지 센터와 달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 센터다.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대상별 고용서비스 전문기관과 남구·중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시 일자리정책과 ☎440-4232

IMAGE NEWS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인천’입니다.”



INSIDE

아라온호 입항... 인천시 ‘극지 연구 메카로’

인천브랜드 개발을 위한 콘서트 개최

여성행복도시 위한 ‘애인토크콘서트’

전국 첫 광역형 ‘고용복지 센터’ 문을 열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게 듣는다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진용을 갖추었다.
제갈원영 의장을 필두로 황인성 제1부의장과 이강호 제2부의장이
나란히 의장단에 올라 시의회를 이끌어 됐다. 의장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정리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제갈원영 의장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제갈원영 의장은 후반기 의회 목표로 ‘소통과 협력’을 꼽았다. 의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해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장 당선 소감 및 각오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당선되어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300만 인천 시민이 주인인 인천시의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의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크게 4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 편 네 편이 아닌 모두가 우리 편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최대한 축소하고 여·야를 조율하는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장려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천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반기부터 이어 온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아픔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인천 시민의 행복을 여는데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겸양지덕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 시민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 모니터 요원들이 제안하는 생활 불편 사항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은 개선 방안 마련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원 개인과 ‘상임위 중심’으로 시민이 있는 어디든 찾아가 의견을 듣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의정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활동 계획은?

의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300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후반기 입법 활동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는 의원상이 있다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원이 되려면 먼저 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본인들이 속한 상임위 분야의 공부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시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 제안이나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도 기본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잘한 부분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성 제1부의장은 의사 출신으로 제4대 시의원에 이어 정치에 몸담고 있다. 평소 원도심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반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부의장으로서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행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부하는 의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는 의회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에 관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원도심 활성화는 곧 인천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시가 추진 중인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원도심에 적용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도시



이강호 제2부의장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문화시설과 녹지, 체육 시설을 갖추면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문화·복지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추구하는 의원상은?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의 인천을 그리면서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자세로 임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한말씀?

인천 시민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은 300만 인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국 2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많은 주목받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인천이 자족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황인성 제1부의장

생각합니다. 인천의 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정리와 추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평소에 추구하는 의원상은?

시민들에 의해 선발된 의원은 무슨 일을 추진하든 시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늘 겸손한 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한말씀?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셨기에 지역 주민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일하겠습니다.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연수2



공병권위원장

옹진



김경선위원

서구2



김종인위원

비례



박영애위원

남동4



박종우위원

동구2



유일용부위원장

비례



박병만부위원장

연수1



정창일위원

계양2



조계자위원

비례



허준위원

계양1



홍정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남구2



이영훈위원장

비례



박영애부위원장

비례



허준부위원장

계양3



이용범위원

부평4



차준택위원

동구1



황인성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남동1



황홍구위원장

옹진



김경선부위원장

계양2



조계자부위원장

연수2



공병권위원

강화



안영수위원

남동3



이강호위원

남구1



최용덕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중구2



김정현위원장

연수1



정창일부위원장

비례



박병만부위원장

남구4



김궁윤위원

서구1



김진규위원

서구4



박승희위원

부평2



유제홍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서구3



최석성위원장

동구2



유일용부위원장

계양1



홍정화부위원장

중구1



노경수위원

남동5



오홍철위원

계양4



이한구위원

남구3



임정빈위원

교육위원회

부평1



신은호위원장

남동4



박종우부위원장

서구2



김종인부위원장

부평3



손철운위원

남동2



신영은위원

비례



이영환위원

부평5



최만용위원

COUNCIL
NEWS



베트남 대사, 인천시의회 방문

베트남 팜후치(Pham Huu Chi) 대사가 지난달 4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팜후치 대사는 베트남 축구스타이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쩌엥(Luong Xuan Truong) 선수와 함께 제갈원영 의장을 예방, 양국의 축구발전 및 친선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갈원영 의장은 “베트남은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인천시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팜후치 대사와 쩌엥 선수의 이번 방문이 앞으로 인천과 베트남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선정

인천시의회가 5월과 6월 의정모니터 제안서 4건을 심사, 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 가운데 수봉공원 정상에 설치돼 있는 관

광안내지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개선하자는 ‘수봉공원에 설치된 인천광안내지도 문제’ 의견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수 제안에는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음식점 사업장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적극적으로 비치 게시하도록 지도하자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 제안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의정모니터 제안 심사 및 우수제안 선정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12회의 심사를 통해 3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 시의회에서 격월로 발간되는 의회저널에 게재하고 있다.

회의를 열었다. 조례안 304건, 예산·결산안 19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도 총 637건을 개정·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조례안 총 304건 중 42%인 127건이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의원들은 현장정치 구현을 위해 105회에 걸쳐 민생현장 220여 개소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12회, 간담회 44회를 개최, 활발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다.

웨이하이 남해신구 부시장, 인천시의회 방문

중국 웨이하이 남해신구에서 교신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달 11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사)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희 의원의 초청으로 시의회를 예방, 인천시 의원들과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해신구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달 4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7대 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1일 개원해 17회에 걸쳐 256일간의



제7대 의회 개원 2주년 기자간담회

인천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달 4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7대 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1일 개원해 17회에 걸쳐 256일간의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이제 세 번호만 기억하세요~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으
로 신고는 더 쉬워지고 출동은 더 빨라집니다.

하! 복잡했던 2개의 각종 신고·상담 전화번
호가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로 단순
화 되고 모든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됩니다.
둘!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긴급구조, 대
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하
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전화해주
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후보를 찾습니다

우리는 향토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적을 선양하기 위
해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상' 유공자를 추천받습니다.

수상부문 5부문

부문별	공적내용
문학	• 시수필소설희곡 발표 등 왕성한 창작의욕으로 활동이 뛰어난 자 • 인천문단 등 지역문화 발전에 커다란 공적이 있는 자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각다자디자인서예사진 등 창작활동 및 지역 미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공연 예술	• 음악·국악·무용·연극·연예·영화·기타 공연예술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체육	•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함으로써 뛰어난 기량과 기록을 남긴 우수 선수 또는 지도자 로서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언론	• 신문 방송 등의 분야에서 올바른 언론 창달로 지역사회 언론 발전에 크게공헌한 자

수상인원 5명(부문별 1명)

시상내역 인천광역시시장 상패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인
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 경력이 없는 자
- 문화예술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인천광
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 경력이 없는 자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8월 1일(월)~24일(수)

• 접수처 : 시 문화예술과

• 보내실 곳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우)21554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각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교육감 또는 군수, 구청장 / 인천광역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13

무료 컴퓨터 특강

인천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는 컴퓨터 특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의내용 ITQ 실전 파워포인트(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3D입체 파워포인트)

교육일시 9월 3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318호실

강사 이광호 교수(인천전문대학 컴퓨터학부 교수)

교육신청 선착순 25명

교육비 무료

접수방법 전화 및 카페(cafe.daum.net/Incheonlifelongedu)를 통해 신청

문의 ☎010-4691-9396, 010-6288-2625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공간 대관 안내

학산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창작활동을 위해 공연장과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을 빌려드립니다.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 월,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간대관 (2016년 시범운영 기간)		
구분	사용료	비고
공연장	1일 10만 원(세팅 및 리허설 5만 원) 3시간 4만 원(세팅 및 리허설 2만 원)	공연장 기자재 사용은 생활문화센터 조례 규정에 의거함
다목적실	무료(사전신청 필수)	1일 최대 4시간, 월 5회 이내 이용
동아리실 (2개)	무료(사전신청 필수)	1일 최대 4시간, 월 5회 이내 이용

대관 절차

신청서 다운로드(홈페이지) → 이메일, 현장접수 → 대관 승인 → 결제 → 공간 사용

신청대상 3인 이상 동아리 누구나 / 공연장의 경우 대관 심의에 통과된 개인 가능

문의 ☎866-3993, www.haksanculture.or.kr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 강좌 수강생 모집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전통문화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전통
문화예술 교육·체험’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모집

• 대상 : 일반 시민, 한국 전통 문화예술에 관
심있는 분

• 모집인원 : 강좌별 20명

• 모집기간 : 8월 11일(목)~8월 26일(금)

• 강좌비 : 무료(단,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모집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및 전수교육관
방문접수

• 홈페이지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http://ilc.incheon.go.kr)

※강좌별 모집인원 50%미만시 해당 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교실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교실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8월 9일(화)~11월 24일(목) /

주2회 (화,목 오전 10시~오후 2시)

대상 결혼이민자

장소 미추홀도서관 컴퓨터교육실 3층

교육내용

• 컴퓨터기초교육(컴퓨터구성, 인터넷기초, 한글)

• 컴퓨터 활용 교육(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문의 ☎467-3912



2016년 시니어 아이디어 창업스쿨

(사)인천벤처기업협회는 2016년 시니어 아
이디어 창업스쿨을 운영합니다.

교육기간 8월 8일~ 10월 7일 / 주 5회, 160시간

교육대상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만
40 이상 시니어(예비)창업자

모집인원 30명

교육비 15만원

(교육생 1인당 정부지원금 100만원 지원)

접수시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접수방법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moonsr314@nate.com)접수

문의 ☎567-5051 /

(사)인천벤처기업협회(www.inva.or.kr)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인천광역시치매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임을 알리기 위한 2016년 치매 인
식 개선 '사진 및 치매환자 작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

- 사진부문: 미(美)치(痴)도록 행복한 순간-치매환자의 행
복한 순간 또는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 일반 노인이 치매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행복한 순간의 모습

- 시화부문: 미(美)치(痴)도록 행복한 이야기-치매환자의
작품(시와 그림)을 통해 행복한 순간 또는 그와 관련된 일화

응모 자격 누구나 참여가능(단, 시화 부문의 경우 치매 환자의 작품에 한함)

공모 기간 8월 26일까지

문의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연계홍보팀 ☎472-2028, (incheon.nid.or.kr)공지사항 참고



「인천의 노래」 경인방송 90.7MHz 기획방송 안내

경인방송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음'을 통해
인천의 노래와 다양한 인천소식이 방영됩니
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관심 부탁드
립니다.

프로그램명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음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6시

방송내용 인천의 노래(대중가요) 및 인천소
식 소개

※ 인천의 노래 발굴(500곡) : 민요 38, 가곡
4, 대중가요 187, 교가 271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13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안내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
라 아래 기간에 인천가족공원 내에 안치한
사용자(연고자)께서는 사용기간 연장을 신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대상 2003년~2006년 추모의집 안치
불안함 / 2000년~2016년 가족봉
안묘, 계단조성식묘

연장방법 사용료 납부로 연장가능

납부방법 계좌입금 또는 가족공원사업단 방
문 직접 납부

문의 인천가족공원 ☎510-1954~57

8월 주제는 축제 인천 사는 이야기



추억 속 부평풍물축제

10여 년 전인 2007년, 아이들과 부평풍물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커서 지금, 큰 아이는 고
등학교 3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
다. 지나간 추억이 문득 그림습니다. 권영익 부평구 부흥로



애들아~ 캠핑가자!

온 식구가 용기를 내 캠핑에 도전했
습니다. 장소는 동네에서 가까운 인
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으로~
짧은 하룻밤이지만 그 달달한 추억
은 오래 오래 기억될 겁니다.
김정훈 남동구 구월로



바다가 있어, 인천은 하루하루가 축제

영흥도 심리포해수욕장. '친구일까? 자매일까?' 천진난만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캐고 있
는 모습이 예뻐서 찰칵~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멀리서 여객선이 다양한 사연을 안고 지나
갑니다. 인천은 바다가 있어 하루하루가 축제입니다. 김은철 남동구 선수촌로



인천어린이과학관에서 아이들만의 축제를

매번 학교현장학습 때면 인천어린이과학관을 찾습니다. 과학 관련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축제의 현장에 온 듯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학습 사전 답사를 와서 찰칵~

조원표 경기도 부천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다음 달 주제는 '가족 여행'입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
내
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개포동, 남포동, 그리고 신포동?

글 오진동 문화상점 재미난상회 대표(개항장문화지구발전협의회 회장)



80년대를 인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한때 개가 포기한 동네 개포동, 남자가 포기한 동네 남포동, 신도 포기한 동네 신포동이라는, 인천만의 ‘은어’를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이 말은 개포동이나 남포동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른 소위 잘나가(?)는 동네와 비교해서 인천 신포동의 위상을 표현한 말이다.

그 시절 신포동은 시냇말로 잘나갔다. 없는 게 없었다. 길을 걸으면 수많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음악소리로 거리는 활기찼고, 어깨가 부딪혀 걷기조차 불편한 골목길은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멈춰 선 자동차와 뱅뱅거리는 클랙슨 소리는 어수선하지만 온 동네를 살아 숨 쉬게 했다. 그때의 나는 동인천에서 화실을 하며 1호선 전철을 타고 홍대까지 통학할 때다. 당시 신촌이나 홍대는 우리 동네 신포동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였다. 학교를 다녀온 나는 해 질 무렵부터 동틀 아침까지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다. 그게 주된 일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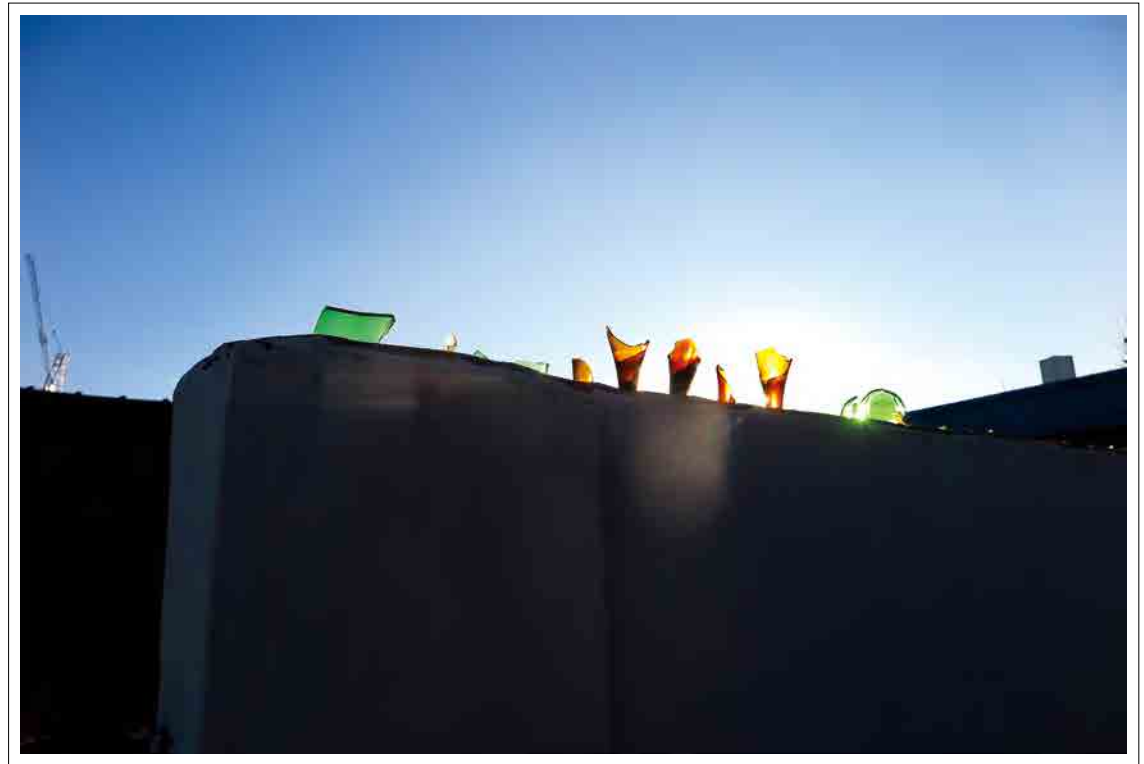
그때의 나처럼 신포동 거리를 헤매던 군상이 지금은 우리나라 각계계층에 어엿한 문화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방증일 것이다. 그 시절 신포동은 우리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장소요 커뮤니티 공간이자 우리의 20대를 키워준 자양분이었다. 그런 신포동이 많은 이유와 세월의 흐름 속에 침체기를 겪으며 숨죽이다가 몇 년 전부

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전성기 시절의 옛 모습에 비할 수 없지만 새로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신포동에 살고 있는 나에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인천시가 인천 중구 내항 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6천억 원 규모의 20여 사업을 이 일대에서 추가로 진행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왜일까? 나 같은 소시민에겐 6천억 원이란 금액이 얼마인지 상상도 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동네엔 동네의 발전을 꿈꾸며 버티다 떠나간 그들의 노고를 칭송하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맞이할 터전을 다지는 게 우선이다. 또 개발에 폐밀려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원주민들을 위로하고, 늙고 쇠퇴해 버린 가동을 다시 세우고 보듬어 주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무릇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도시라는 장밋빛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살아 숨 쉴 사람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때를 기다려야 옳은 일이다.

혹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신도 포기했다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리기를 기대해본다.



아프겠다, 못 넘겠다

테러, 전쟁, 재난 ...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인천.

그중에서도 가장 평안(平安)한 곳은

‘세콤’보다 센 장치가 설치돼 있는 우리집.

— 남구 송의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사람의 생명은 기가 모인 것이다. 모이면 생명이 되고 흩어지면 죽게 된다.”

장자 - 知北游

도시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 사람이 모여 생명이 되면 그야말로 도시가 생명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인천의 새 모습을 기대한다.

* 세계 도시·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는 최근 118 나라 342 도시 중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을 꼽았다.